

40년 남몰래 품어온 간절한 세레나데

김선태 시인 시집 '한 사람이' 발간

한 여인 향한 순애보 50편 수록
시인의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삼포세대' 가벼운 연애 안타까워



“짜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안타깝고도 황홀한 사랑의 방식이다. 오늘도 나는 그 그림자 속에 스스로 간혀 공허한 행복감에 떨며 우두커니 서 있다”

사랑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다. 예술가들은

가장 매력적인 소재로 사랑을 형상화했고,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은 나름의 관점으로 사랑을 연구해 왔다.

그러나 요즘에는 사랑을 포기한 이들이 많다. 취업이 안 돼 아예 연애를 포기하는 '삼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 젊은이들이 늘었다는 소식은 더 이상 새롭지 않다. 더욱이 작금의 '썸타기'는 고전적 방식의 사랑과는 거리가 있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이것저것 재는 것은, 사랑도 다분히 계산의 대상이 됐다는 안타까움을 준다.

어린 시절부터 남몰래 가슴에 품어온 한 여인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한 권의 시집으로 엮어낸 이가 있다. 주인공은 김선태 시인(57·목포대 국문과 교수·사진). 그가 최근 사랑시집 '한 사람이 다녀갔다'(천년의 시작)를 발간해 문단 안팎에 찬찬한 화제가 되고 있다.

“어떻게 그렇게 40년 동안 짜사랑을 할 수 있는 나”고 묻는 말에 시인은 “내게는 그런 부분이 있다. 대체로 시인들은 나와 같은 감성을 소유한 이들이



많은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는 “남의 눈치 안 보고 마음속에 살아 있는 사랑 이야기를 써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한 “요즘 연애시는 너무 가벼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특히 성추행이나 성폭행 같은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순애보적인 연애시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강진 출신인 그는 지난 1993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와 월간 '현대문학'으로 등단했다. 그동안 남도의 서정을 토대로 정갈한 시의 미학을 펼쳐왔던 그였기에 '짜사랑'을 소재로 한 시편들은 다소 의외였다.

“시인들은 나이와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항상 소년들이니까. 제게는 순애보적인 면이 있는데, 이 시집을 펴내기 위해 무려 4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시집은 한 마디로 40여 년에 걸쳐 완결된 작품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두 50편의 작품은 애오

라지 한 여인을 향한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주위에서 사적인 내용도 있는데 굳이 시집을 내려 하느냐고 만류한 이들도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문단에 내보일 대상으로 시집을 낸 게 아니라 이 시집 또한 내 문학의 역사로 내 삶의 역사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사랑하는 동안 사랑은 없다/ 사랑한다는 말과 격정만 들끓을 뿐/ 바로 그래서 사랑은 곁에 없다./ (중략) 그러므로 사랑이여 거리 두기를 하자./ 오지 않는 것만이 기다림이다/ 외로우니까 몸에서 마른 잎 타는 냄새가 난다/ 거기 살가죽 다 벗어버린 그리움의 뼈가 있다.”(‘거리두기’ 중에서)

시 ‘거리두기’에는 화자의 조건 없는 기다림과 애뜻함이 담겨 있다. 그러나 “짜사랑은 이별 후에야 온다”는 말처럼 인내의 고통은 더 큰 사랑의 의미로 확장된다. 마치 에리히 프롬이 ‘사랑의 기술’에서 말했던, 사랑은 부단히 성찰하고 감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한다.

시집 출간에 대한 사모님 반응은 어떤가라는 물음에 “결혼 전에 이미 고백을 했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춘의 시절 짜사랑은 아내가 관여할 시간대가 아니었다. 아내는 그 자체로 나를 존중하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시집 제목을 “한 사람이 다녀갔다”라고 붙인 이유를 알 것도 같다. “다녀간 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에서 시인의 마음속에 살아 있던 사랑이 야기를 대략 그려볼 뿐이다. 이어 들려오는 “짜사랑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 잔잔한 여운을 준다.

해설을 쓴 이형권 문학평론가는 “그에게는 기다림이 곧 사랑이어서, 사랑은 현실적 소유와 육체적 욕망을 넘어서서 존재하는 고귀한 대상이다”고 평한다.

한편 시인은 지금까지 ‘간이역’, ‘작은 업서’, ‘동백숲에 길을 묻다’ 등 시집과 평론집 ‘진정성의 시학’ 등을 펴냈다. 애지문학상, 영리시문학상, 전남도문학상을 수상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세상의 모든 감정 첼로 한 대로 표현



문태국 '바흐 리사이틀'
내일 금호아트홀

첼리스트 문태국(사진)이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으로 리사이틀을 펼친다. 오는 14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그가 이번에 선보이는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은 첼로라는 악기가 낼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기교와 감정적 표현을 필요로 하는 작품이다.

한 대의 첼로로만 모든 선율과 반주를 표현하며 음악의 전달해야 하기에 더욱 연주자의 음악세계와 내면이 면밀하게 관객에게 전달되는 작품으로, 첼리스트라면 누구나 갈망하는 레퍼토리이면서도 쉽사리 도전할 수 없는 작품이기도 하다.

이는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 1번, 5번과 6번을 차례로 연주하며 담담하고 묵직한 첼로 선

율로 겨울 밤 금호아트홀을 찾은 관객들을 그만의 음악세계로 안내할 예정이다.

문태국은 단단하고 진중한 이미지 너머 특유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해지는 청년 아티스트로, 한 해 동안 국내 음악계에 팬 층을 형성해왔다.

2004년 금호영재콘서트에서 상을 수상했으며 2014년 파블로 카살스 국제 첼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첼로 부문에서 우승해 클래식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어 올해 '2017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티켓가격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062-360-8432.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라포르 색소폰 앙상블'

내일 문화당서 공연

라포르 색소폰 앙상블(Rapport Saxophone Ensemble·사진) 12번째 정기공연이 14일 오후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날 연주곡으로는 매기의 추억 메들리(미국 민요)를 시작으로 모차르트의 '심포니 No.40', 카펜터스의 'Top of the World', '그리운 금강산'(한국 가곡), 'Sunny'(영화 주제곡), 도나씨머의 'Hot Stuff',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인순이의 '밤이면 밤마다' 등을 들려준다.

또 색소폰 솔로로 송삼홍 단원이 브라이언 케네디의 'You Raise Me Up'을, 조대연주자 손민씨가 비틀즈의 'My Love'와 'Play it like you mean it'을 연주한다.

축하공연으로 초대 가수 김현우가 임재범의 '비



상, 너를 위해'를 들려준다. 지난 2004년 2월 창단한 라포르 색소폰 앙상블은 이듬해 11월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첫 번째 정기연주회를 시작으로, 도심 속 작은 문화예술 축제, 순천만 정월 힐링 음악

회, 화순 힐링 푸드 음악회,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주말콘서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문의 010-4608-7942.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태교에 좋은 첼로음악 오늘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첼리스트 윤소희

첼리스트 윤소희의 뮤직바스켓 '태아와의 38주 음악여행'이 13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광주문화재단이 준비한 올해 아홉 번째 월요 콘서트인 이번 공연은 '생명의 탄생'을 주제로 가슴에 품고 연주하는 첼로와 같이 태반 속에서 38주간 자라나는 생명체에게 첼로 연주를 들려주고 음악이 태아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과정을 함께 경험함으로써 아이와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생명영태의 신비와 소중함을 전달하는 시간이다.

공연은 엘가의 '사랑의 인사', 생상스의 '백조', 아일랜드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등 첼로 연주 영상과 해설을 곁들여 선사할 계획이다.

연주는 첼리스트 윤소희(순천대학교 외래교수), 피아니스트 황미경(순천대학교 피아노학과 교수), 영상 및 해설 김찬경(동화바이올린 연구소 대표)씨의 합동공연으로 진행된다.

공연 관람은 사전 전화예약 또는 현장예매로 진행되며, 입장료는 일반 2만원, 고등학생 이하 1만원, 6세 이상 관람가. 공연문의 062-670-7942.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담양군 고서면 고읍리
조정가

토지 1497평 작가레지던스 건물 180평 캠핑장 추천 매매가 16억

남구 봉선동 광주겨자씨교회인근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경매물건

토지 690평 감정가 4,685,000,000 건물 431평 최저가 4,685,000,000

【법원 경매/공매】

토 지	일 반 물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양군 용면 용치리 건양마을인근 보전관리지역 마을버스도로점 임야 114000평 감정가 454,000,000 최저가 318,000,000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임야 파도리사무소인근 도로점 토지 18452평 감정가 140,000,000 최저가 140,000,000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인근 도시지역 일반상업도시 토지 2746평 감정가 7,300,000,000 최저가 3,600,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구 치평동 세정 아울렛 옆 도로가 중심상가 4층건물 현재 영업 중 토지 133평 건물면적 90평 매매가 23억 ▶서구 풍암동 중심상가 근린시설 토지 400평 건물면적 100평 매매가 17억 ▶서구 치평동 삼성화재 인근 근린시설 현재 영업 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광산구 비아동 제2종일반주거지역 근도로변 토지 94평 평당 395만원 ▶서구 마곡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매매가 38억 조정가 ▶서구 치평동 소각장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입증 가능 매매가 17억 ▶광산구 비아동 주민센터인근 원룸, 창고부지 대지 97.4평 매매가 4억1천만원 조정가 ▶광산구 운남동 우방아파트건너편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162평 매매가 7억5천만원 조정가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366 전 도로점 토지200평 매매가 1억4천 ▶담양군 남면 경산리 전원주택지 1종일반주거지역 무등산자락 토지 456평 3억 조정가능 ▶태양광가능 평당 2만원 강진 신전면 수양리 임야 42000평 ▶신안군 중도면 우천리 임야 토지 6714평 매매가 3억5천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11필지 자연녹지 택지조성 2540평 5억 5천만원
근 린 시 설	공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주시 성북동 성북동주민센터인근 토지 440평 건물 970평 감정가 3,260,000,000 최저가 3,260,000,000 ▶금남로3가 업무시설 토지 408평 건물 1503평 감정가 103억 최저가 76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성 서삼면 송현리 환경에너지 토지 1361평 건물 372평 감정가 938,000,000 최저가 336,000,000
일 반 물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구 운암동 중흥아파트인근 수익형빌라 토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가 520,000,000 ▶담양군 담양읍 터미널인근 로터리 중심상가 대지 144평 건물 2층 매매가 11억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